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가입 급증

-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보험 가입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일본의 상위 5대 손해보험회사가 발표한 지진보험 가입실적을 종합한 결과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한 달 동안 약 59만 건의 지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전년동월 대비 신규계약이 5만 3천건(9.8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상기 9.8% 증가율은 2009년도 1년간의 업계 전체의 증가율 3.6%보다 2.7배를 상회하는 수준임.
  - 특히, 대지진 발생 이후부터 지진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3월 중순 이후 지진보험계약 체결건수 기준 증가율이 전년도 증가율의 6배 이상인 손해보험회사도 있음.
- 일본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단독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데, 기존에 화재보험에만 가입했던 가입자들 상당수가 지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2010년(2010년 3월말) 기준 지진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,227만 건으로 늘어나고 가구가입률이 약 23%에 이르는 등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가입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동일본 지역의 가입률은 이와테현 12%, 미야기현 33%, 후쿠시마현 14%임.
- 노무라연구소에 의하면 미가입자의 지진보험 가입니즈가 높지만, 높은 보험료 부담이 가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됨.
  - 동경 및 시즈오카 등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따라 지진보험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만 1,300엔이고, 화재보험료와 합산 시에는 연간 약 5만~6만엔에 해당되는 가운데, 금년 중 지진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.

(요미우리신문 5/10, 마이니치신문 5/10 뉴스 종합)